

제주-칭다오 항로 투자심사 패스 논란 법제처로

도, 4일 손실보전금 지급 협정 유권해석 요청
행안부처럼 투자 이행 대상 결론시 수용기로
‘사후 투자심사’ 가능성 판단 위해 정부 협의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지급 협정을 두고 제기된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사) 패스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의 공이 법제처로 넘어갔다. 제주도는 법제처마저도 이번 협정이 중앙투자 심사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이를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지만, 어떤 식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법제처에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와 맺은 협정이 중투심사 대상인지 판단해 달라며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도는 법제처에 이미 중투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행정안전부 해석을 포함해 그렇지 않다고 본 제주도 의견과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점 상 그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지만 계약에 의해 나중에라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한다.

도는 칭다오 선사 측이 화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빈 배’로 다니는 등 손실을 보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을 보전하기로 하고 지난 2024년 12월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투자심사는 받지 않았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이 투자심사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항로 개설 주무부서인 해운항만과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행안부는 해당 조례는 칭다오 항로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지원 규정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예외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중투심사 담당부처의 이런 판단에도, 도는 법령 해석 주무부처는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6일 금요일 음 12월 19일 (11월)

기상정보



흐리고 한때 비/눈

제주에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 낮 최고기온은 4-12℃로 예상된다. 해안 곳에 따라 한때 약한 비나 눈이 오겠고 밤에 중산간 지역에 가끔 눈이 오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60%
20%	성 산	60%
30%	고 산	30%
30%	서귀포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흐리고 눈	-1/5℃
모레	☁ 흐리고 눈	-2/5℃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한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해돋이 07:27	달뜨기 22:40
해지기 18:09	달지기 09:39

물때	만조 01:09 13:24	간조 07:38 20:08
----	-------------------	-------------------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

제주도, 설 명절 대비

제주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한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오는 14일까지 도내 주요 위판장과 양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갈치, 고등어, 참조기, 전복 등 명절 다소비 품목과 제주광어, 강도다리 등 주요 양식 횡감 어종을 중심으로 생산·출하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선다.

강봉조 해양수산연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주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성 조사와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제주 수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유채꽃과 농민 5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농지에서 농민들이 유채꽃 너머에서 양배추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주말·휴일 강풍 동반 눈·비... 영하권 ‘맹추위’

봄을 시샘하는 맹추위가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후(6-9시)부터 7일 늦은 새벽(3-6시) 사이에 비 또는 눈(중산간 이상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

산간 1-5cm, 해안 1cm 안팎, 제주 5mm 안팎 등이다.

6일 아침최저기온은 2-6℃(평년 2-4℃), 낮최고기온은 4-11℃(평년 9-11℃)로 예상된다. 7일 아침최저기온은 -1-1℃, 낮최고기온은 2-6℃가 되겠다. 이어 8일 아침최저기온은 -2-0℃, 낮최고기온은 3-5℃로 더욱 낮아 춥겠다. 백금탁기자

“양식장 등으로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5일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조사보고서 발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대정읍 노을해안로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심각한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이하 파란)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요인과 관리 방안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육상 양식장 ▷갯바위 레저 낚시 ▷관광 선박 ▷해상풍력 발전단지 ▷육상 기인 오염물질 등 다섯 가지로 선정해 조사했다.

파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의 육상 양식장 332개 중 72개소(21.7%)가 대정읍 연안에 밀집해 있다. 파란이 배출관 인근 28개 지점을 선정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6개 지점을 제외한 22곳은 모두 수질이 오염된 상태였다.

또 노을해안로 연안에서 낚시가 이뤄지는 지점 11곳이 남방큰돌고

래 주요 출현지점이 겹치면서 낚시 쓰레기 위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란은 ▷수질 오염원 관리 ▷육상 양식장 배출수 수질 관리 제도 개선 ▷연안수질 관리계획 수립 ▷해양 레저 활동 관리 ▷돌고래 돌고래 관광 선박 규제 강화 ▷낚시 금지구역 지정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을 제안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엌 사랑으로

재성철강 본사 및 제1공장 확장이전 개장식

서귀포시 이웃사랑 나눔실천

2025년 나눔국민대상 표창 수상

재성철강 智山 한 해 성 대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아너소사이어티 회원

30여년 업력과 신용을 바탕으로 확장 이전 개장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상의 고객만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일시 2026년 2월 8일(일요일)
장소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66 (서귀포시 강정동 1540)

- 현대 하이스코 파이프 전문 취급점 (K.S정품)
- ▲ 시설농업용 하우스파이프
 - ▲ 하우스자재 · 비닐 판매

